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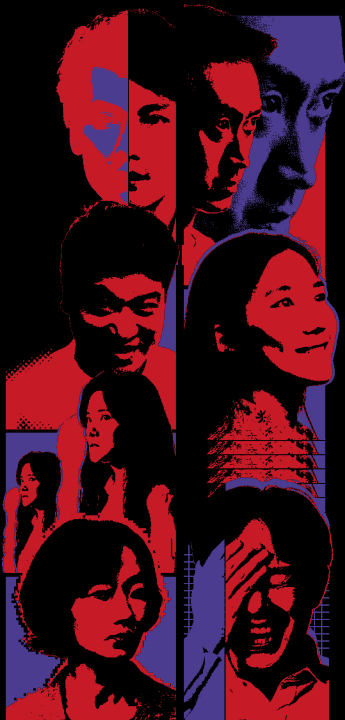
국립극단

살인자

연극

원작 호시 신이치  
각색·연출 전인철

백성희장민호극장  
2019.4.24-5.19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mailto:perf@ntck.or.kr)



# 나는 살인자입니다

국립극단

## 나는 살인자입니다

일정

2019년  
4월 24일(수)~  
5월 19일(일)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호시 신이치 星新一 원작  
전인철 각색·연출

이 공연은 일본의 작가 호시 신이치(星新一, 1926-1997)의  
'쇼트-쇼트 스토리' 6편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 Hoshi Library / Shinchosha



★★★★★  
제54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무대예술상, 연기상



## 전인철



극단 돌파구 대표

### 주요작품

연극

<만약 내가 진짜라면>  
<모든 영광은>  
<아라비안 나이트>  
<브라질>  
<목란언니> 외

### 수상내역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나는 살인자입니다>  
2015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 <노란 봉투>  
2012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목란언니>  
2012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목란언니>  
2012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 <목란언니>

## 언젠가 이런 매력적인 작품을 또 만들 수 있기를.

연출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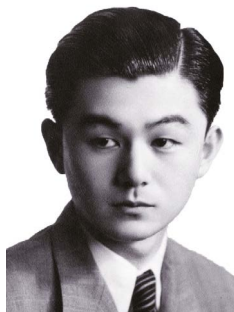
어렵게 시작되었던 이 연극이 다시 관객을 만나게 되었네요.  
작가 호시 신이치는 영상디자이너로 참여한 정병목씨의 소개로  
몇 년 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문명에 대한 냉혹한 시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연민,  
짧은 이야기와 반전.  
흥미롭고 엉뚱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봐, 나와!’의 영상 활용의 첫 아이디어는  
영상디자이너 정병목에게서 시작되었고,  
‘우주의 남자들’의 움직이는 별은  
배우들의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시 신이치 선생님의 대표작이면서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인  
‘장치 한 대’는 첫 아이디어부터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안무가 금배섭의 것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연습실에서의 허술한 장면들을  
미술디자이너와 음악감독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모두 같이 만든 작품이라 더 좋습니다.  
언젠가 이런 매력적인 작품을 또 만들 수 있기를.



©The Hoshi Library

### 주요작품

『호시 신이치의  
플라시보 시리즈』(전 33권)  
『기묘한 이야기』  
『그 아이의 상자』  
『변덕스런 로봇』  
『미래환상극 47』  
『진화한 원숭이:  
골때리는 인간들1-3』 외

### 수상내역

1998 일본 SF작가어워드  
공로상  
1968 제21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망상은행』

## 호시 신이치론 - 공포의 원형질 미스터리 평론

### 01 초기의 잔혹한 관점

호시 신이치는 ‘쇼트-쇼트’라는 가장 짧은 소설 형식으로 인간존재에 숨겨진 공포의 본질을 메마르고 잔혹한 관점으로 날카롭게 응시하는 데서 출발했다. 특히, 호시 신이치가 ‘엔 씨의 유원지’ 저자후기에서 서술하였듯이, 호시 신이치를 그저 SF작가로만 주목하여 그의 본질적인 존재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편파적 해석이 되고 말 것이다. “형식보다도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발상이 우선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작품화할 때 가장 효과적인 형식을 고르는 것. 특히, 비약적인 무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반전이 있는 미스터리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 과학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비약이 필요할 때는 SF의 형식을 취한다. 그것보다 더 큰 비약이 필요할 때는 판타지의 형식을 선택한다. 나를 SF작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작품 중에는 반전이 있는 미스터리가 SF보다 많을 것이다. 나는 SF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뚝코짱’, ‘이봐, 나와!’, ‘생활유지부’ 등 잔혹한 시선으로 공포의 세계를 그린 초기의 수많은 SF수작과 함께 ‘더위’ 같은 훌륭한 공포소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초기의 잔혹한 관점은 1963년경부터 점차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짓궂고 유머러스한 미니 미스터리가 나타나게 된다.

### 02 다정하고 잔혹하게, 아름다운 그로테스크

현대문명의 아픈 곳을 해부용 칼로 갈라 꺼내 보이는 듯한 호시 신이치의 잔혹한 시선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창적인 문학적 자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디스틱한 시선의 배경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다정함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정하고 잔혹하고, 짓궂고 유머러스하고 심술궂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그로테스크한 호시 신이치의 쇼트-쇼트의 불가사의한 매력은 아마도 이런 기괴한 모순과 대립으로 인해 성립되는 것 같다. 물론 호시 신이치의 많은 작품이 날카로운 독 혹은 문명비판으로 넘쳐난다고 해서, 작가가 꼭 문명비판을 의도하고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어디까지나 재미있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문학평론가

곤다 만지  
権田萬治

### 번역

고주영

※ 이 글은 [별책 신평 '호시 신이치의 세계'] 제9권 제4호(1976년 12월)에 실린 글 중 일부를 작가의 허락 하에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작가 소개

실제로 호시 신이치는 「SF와 우화」라는 에세이에서 “나는 문명비판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 명작이 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 문명비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난감하다. 그것보다는 재미있는 작품이 중요하다.”라고 적고 있다.

### 03 인간의 원형으로부터 현대문명을 이해하다

호시 신이치는 일본에서 쇼트-쇼트의 개척자이자 그 질과 양에서도 대표적인 존재이다. 그의 작품 수는 이미 750편을 넘었지만, 작품 모두가 수준이 높고 유사작이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이니 정말이지 경이적이다. 대체 쇼트-쇼트란 무엇인가. 로버트 오버퍼스트에 의하면 “쇼트-쇼트는 1,500단어 안에 단편소설 고유의 모든 드라마를 포함한 것”으로 “단편소설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과 완전한 솜씨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응축과 억제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호시 신이치가 쇼트-쇼트 분야의 대표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풍부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동시에 작가의 인간인식 방식이 군더더기를 빼고 단번에 원형을 파악하는 쇼트-쇼트에 그야말로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호시 신이치의 인간인식은 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후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원형에서 현대문명이 자연적으로 부각되는 방식이다. 즉, 인간학적 방식이며 사회학적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스터리를 쓸 때에도 그의 방식은 사회파 추리소설과는 대조적으로 추상적이다.

### 04 유머러스한 작품으로의 전환

호시 신이치의 첫 장편추리소설 『변덕쟁이 지문』은 작가의 생생하고 잔혹한 시선 대신 짓궂고 유머러스한 취향이 점차 짙게 나타나는, 이른바 한 전환점을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밝고 유머러스한 작품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어이 남작/현대의 모험」과 「미래의 이슬우화」 등에서 일종의 패러디적 지향이 보이게 된 점도 흥미롭다. SF, 미스터리, 판타지, 논픽션, 시대소설 등 호시 신이치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극히 다채롭고 광범위하여 작가가 어떤 방향을 향해갈지 예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변모하던 간에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 평범하게 보였던 현실 속의 불가사의한 초현실, 평온한 삶 뒤에 있는 불길한 죽음 그리고 즐거운 평화 이면에 공포스러운 파괴와 살인 등을 이중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게 하는 잔혹한 눈은 결코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정함과 상냥함, 아름다움과 추함, 짓궂음과 유머, 쾌락과 비애, 비생물적인 것과 금속적인 것, 음악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을 변증법적으로 일관하는 스토리 전개와 결말의 그로테스크적 효과. 이러한 호시 신이치 작품의 매력은 그 표면적인 치장이 어떨 때는 어둡게, 어떨 때는 밝고 화려하게 변화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한 생애에 숨어있는 공포의 본질을 응시함으로써 현대판 원히하우젠 남작인 호시 신이치는 보기와는 다른 평화와 번영 속에서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인의 불행 앞으로도, 조용한 어조로, 반복해 이야기해줄 것이다.



## 하나,

Bar의 마스터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 붓코짱,  
간단한 대답도 가능하다.

"죽여줄까?"  
"죽여줘요"

## One,

Bokko-chan is a sophisticated robot  
created by the master of a bar  
which is capable of giving simple  
answers.

"Want me to kill you?"  
"Please do."

## 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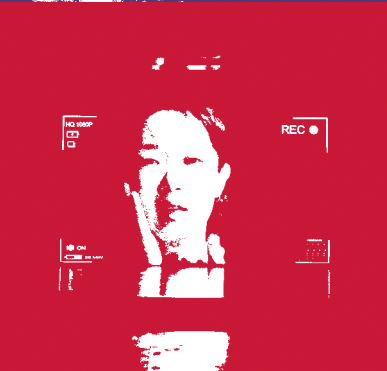
아내가 외출한 13일의 금요일 밤,  
마주선 거울에서  
악마가 나타났다.

"훌륭한 애완동물을  
손에 넣었다!"

## Four,

On the night of Friday the 13th,  
when my wife went out,  
a devil appeared from a mirror.

"I obtained  
an excellent pet!"



## 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은둔생활을  
시작한 청년. 하지만 이제  
외로움을 주체할 수 없다.

"누구 저를  
아는 사람은 없나요!"

## Two,

A young man living a secluded life  
after embezzling company money  
can no longer stand the solitude.

"Is there anyone  
who knows me?"

## 다섯,

수 십 년 만에 지구로 돌아가게 된  
우주의 남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끝없는 공간."

## Five,

Men from the outer space finally  
returning to earth, after decades.

"Nothing but  
endless space  
awaits them."



## 셋,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구멍.  
그곳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봐, 나와!"

## Three,

A mysterious hole popped up  
after a typhoon.  
There is no response from it.

"Hey, come out!"

## 여섯,

장치 한 대를 위해  
국립 연구소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소장.

"지금 세상에 절대로  
필요한 장치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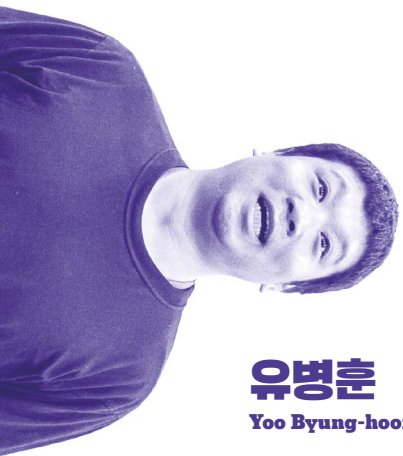
## Six,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president stole public funds only  
for a single device.

"I created a device  
that this world  
absolutely needs."







**유병훈**  
Yoo Byung-hoon

붓코팡 손님4  
**아는 사람** 작은아버지2, 경찰, 행인5  
**이봐, 나와!** 동네주민, 브로커회사, 작업인부  
**우주의 남자들** 남자  
**장치 한 대** 기자, 시민

연극  
<아라비안 나이트> <3월의 눈> <국부>  
<목란언나> <사이닝 시타> <탈출> <홍도>  
<푸르른 날에> <곰의 아내> <게임> 외



**안병식**  
Ahn Byung-sik

붓코팡 바 주인  
**아는 사람** 동창, 작은아버지3, 과장, 카메라  
**이봐, 나와!** 동네주민, 춘장, 학자  
**우주의 남자들** 별(움직임)  
**장치 한 대** 소장

연극  
<만약 내가 진짜라면> <모든 영광은> <말파> <브라질>  
<피와 씨앗> <술취한 포틴브라스> <20세기 건담기>  
<국부> <목란언나> <전화벨이 울린다> 외



**김명기**  
Kim Myung-ki

붓코팡 청년  
**아는 사람** 학교관계자, 작은아버지1,  
기획사대표, 행인6  
**이봐, 나와!** 동네주민  
**개울 남편**  
**우주의 남자들** 별(움직임)  
**장치 한 대** 기자, 시민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모던타임즈> <클라우드 나안>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 <불량청년>  
<리처드3세> <탈출> <곰의 아내>  
<푸르른 날에> 외



**이봉련**  
Lee Bong-ryun

붓코팡 손님3  
**아는 사람** 청년  
**이봐, 나와!** 동네주민  
**우주의 남자들** 별(움직임)  
**장치 한 대** 감독관, 정부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발렌타인 데이> <1945>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피카소 훔치가>  
<만주전선> <그 집 빌라에서 우리는> <청춘예찬>  
<날 보라와요> <전명출 평전> 외



**김정민**  
Kim Jung-min

붓코팡 붓코팡  
**아는 사람** 아파트관리인, 의사, 행인2  
**이봐, 나와!** 동네주민, 신문기자  
**개울 아내**  
**우주의 남자들** 별(움직임)  
**장치 한 대** 기자, 시민

연극  
<누군가 올 거야> <아라비안 나이트> <블라이트>  
<1945> <목란언나> <불역쾌재> <햇빛샤워>  
<환도열차> <고제> <미국아버지> 외



**권일**  
Kwon Il

붓코팡 손님1, 2  
**아는 사람** 대금업자, 사회자, 행인3  
**이봐, 나와!** 동네주민, 브로커  
**우주의 남자들** 청년  
**장치 한 대** 기자, 시민

연극  
<모든 영광은> <냉면> <술취한 포틴브라스> <국부>  
<해야 된다> <크레센도 궁전> <고제> <육쌍둥이>  
<사이드와인더> <갈비집> 외



**박희정**  
Park Hee-jung

붓코팡 손님5  
**아는 사람** 바 알바생, 회사동료, 행인1  
**이봐, 나와!** 동네주민  
**개울 악마**  
**우주의 남자들** 별(움직임)  
**장치 한 대** 기자, 시민

연극  
<이카이노의 눈> <기묘여행> <자본> <미남이신가요>  
<애도하는 사람> <중앙차선 버스정류장>  
<생각은 자유> <쉬는 시간> <캘리헤상>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외

연극평론가

이경미

줄곧 희곡에 의지했던 연극무대가 희곡에 대한 예의, 그 섬김을 중단하고 자체적인 독립성을 주장하고 실천한지 100여 년이 넘었다. 그 시간을 지나 오늘에 이른 연극의 무대는 한편으로는 희곡에 대해 더없이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소설도 그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이때 연극무대가 소설을 소환하는 방식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중 하나는 소설의 서사에 주목해 그 서사를 극적인 대본으로 재배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와 함께 원작의 산문적 언어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 그것까지 무대에서 시청각적으로 입체화하는 것이다.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는 이중 후자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원작자인 호시 신이치의 글쓰기 자체가 워낙 독특하다. 다차원적 언어로, 다차원적인 시공간을 유연하고도 천연덕스럽게 넘나드는 그의 소설은 과학과 판타지, 호러와 우화의 어디 즈음을 쉬지 않고 유명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뒤섞고, 상상과 공상을 사실과 겹쳐놓으며, 원시적 제의와 최첨단 기술문명을 병치시킨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일상 속의 공포, 무감각 속의 불안, 아름다움 속의 잔혹함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절대 친절하게 풀어내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분량의 문장들로 압축해 그 상태로 그대로 독자에게 투척하는 식이다. 그의 언어가 입체적이며 감각적인 이유다. 그러한 밀도가 독자의 상상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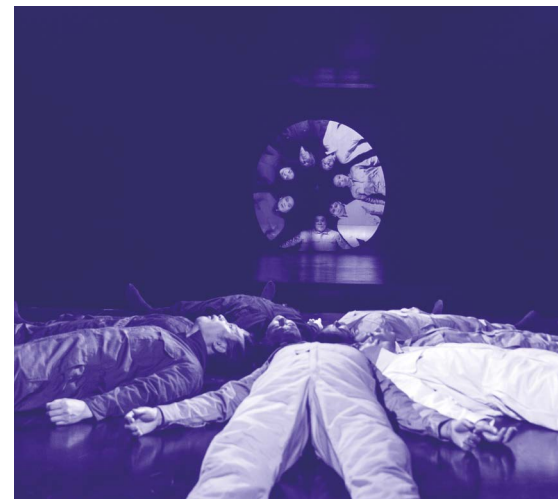
전인철 연출과 7명의 배우들은 호시 신이치가 진단했던 인류 디스토피아의 면면을 지금, 여기의 무대에 현재화한다. 하지만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의 진정한 미덕은 이러한 디스토피아를 구현하는 호시 신이치만의 독특한 언어의 결을 연극적으로 최대한 살려내 무대화하는 그 방식에 있다. 이 연극은 연극이 본래 서사의 재현 이전에 공간의 예술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극은 소설을 무대화하는 여타의 다른 공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별적인 연극성을 확보하게 된다.

## 배우로 다시 쓰는 언어들

〈나는 살인자입니다〉에서도 배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혀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는 여러 단편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이 무대에서, 배우들은 이 각각의 모든 서사를 주도해 이끌어가는 중심이다. 하지만 이 7명의 배우들은 다른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배우들과는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의도적으로 소위 인간임의 모든 흔적들, 즉 살의 질감과 감정을 지워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분장 탓이기도하겠지만, 마치 가면 쓰고 있는 듯 아무런 감정의 파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무표정, 무감각의 상태에서 그들의 시선은 대개 무대 전면, 즉 객석을 향하고 있다. 설령 서로를 쳐다본다고 해도 방향만 그럴 뿐 정작 초점은 살짝 비켜 다른 먼 곳을 향한다. 움직임 또한 매우 조형적이다. 한 자리에 정지 상태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고 누워 있으며, 통상적인 속도보다 더 느리게, 더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과 기계 중간의 인공지능 로봇이 되어 감각과 무감각 사이를 유영하기도 하고, 서로의 몸을 포개어 직선과 곡선, 원과 평면을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연극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됨직한 연기의 틀은 특히 배우들의 말하기, 목소리에서도 완전히 지워져 있다. 배우들의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선명하고, 딱딱하다. 이 목소리로 그들은 소설의 서술체 문장을 가져와 기계적 톤으로 나레이션하듯 중간 중간 소설 속 인물의 말이나 대화를 사투리까지 섞어가면서 수행한다. 하지만 이때 배우의 목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그저 소리와 소리, 음과 음 사이의 주고받음에 더 가깝다.

그러다가 배우가 다른 기계적 사운드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바람소리나 동물의 소리, 기타 소음을 만들어낼 때, 이들의 목소리에서는 그나마 느껴지던 사람의 흔적마저 완전히 지워진다.

이처럼 자신을 목소리와 움직임, 말과 감정 등 낱알로 분절시켜 드러내면서 배우들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물질, 비물질의 이미지로 존재한다. 이 각각의 이미지들이 그때그때 모여져 연결되고 섞이고 또 분절되면서, 연극에는 독특한 리듬들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시청각적인 리듬을 통해 배우들은 원작의 언어를 하나하나 들춰, 언어로 채 서술되지 못한 그 ‘어떤 것’에 차근차근, 치밀하게 다가간다.



## 공간이 만드는 감각들

이 연극에서 배우 못지않게 관객의 감각을 사로잡는 것은 무대 위의 다양한 영상 이미지와 사운드, 그리고 조명이다. 무엇보다 깊이가 10미터가 넘는 이 무대에서 배우가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에 따라 관객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입체감은 그만큼 배가된다. 이때 무대의 저 뒤편에 간간히 떠오르는 초현실적인 영상들은 이러한 무대의 3차원성을 4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빨강과 파랑, 노랑, 흰색과 같은 도드라진 원색의 빛과 색상,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익숙한 팝 음악에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적인 소리 음도 한몫한다. 여기에 인물과 사물의 경계뿐 아니라 말과 언어, 소리의 경계까지 넘나드는 배우들의 느리고 기하학적인 움직임, 그리고 목소리가 어우러지면, 어느새 무대는 실재와 가상, 여기와 저기, 나와 그의 구분이 모호한 무중력의 상태가 되어버린다.



인터미디어 시노그래피 Intermedial Scenography, 즉 무대 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것들이 때로는 그 자체로, 때로는 그때그때 서로와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이 '사이'에서 언어로만 지시될 수도, 시각적으로 재현될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출렁인다. 그러는 동안 극장이란 공간은 보는 장소에만 머물지 않고, 동시에 소리를 듣는 장소, 파동을 감각하는 장소, 즉 공감각의 장소로 전환된다.

<나는 살인자입니다>의 무대는 의당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부재不在의 공간이다. 관객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이 부재의 공간, 무중력의 공간을 함께 유영하면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또 소리의 질감과 파동, 빛의 질감과 파동을 촉각적으로 감각한다. 그러는 사이, 이 부재의 틈새에서 비로소 호시 신이치가 자신의 언어 이면에 가려 놓았던 것들, 어쩌면 무리하게 시각적으로 재현할 경우 오히려 그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는 어떤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고독에서부터 인간 안에 도사린 끔찍한 욕망과 파괴적 본능,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갈망, 파국으로 치닫는 인류의 현재지,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자신인 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이 그것을 더 이상 이성적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아주 가깝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원작

**호시 신이치** 星新一  
Shinichi Hoshi

프로필 4페이지

각색·연출

**전인철**  
Jun In-chul

프로필 3페이지

무대

**박상봉**  
Park Sang-bong

연극  
<죽고 싶지 않아> <사막 속의 흰개미>  
<비평가> <페스트> <육상 발 고추는 왜> 외  
수상  
2013 제50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6 한국 국제2인극페스티벌 무대미술상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조명

**최보윤**  
Choi Bo-yun

연극  
<록엔들>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R&J> <죽고 싶지 않아> <피와 씨앗> 외  
수상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무대 예술상 - 조명  
2016 제3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테프상 - 조명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의상

**김우성**  
Kim Woo-seong

연극  
<자기 앞의 생> <리얼게임> <사물함>  
<전화벨이 울린다> <암전> 외

분장·소품

**장경숙**  
Jang Kyong-suk

연극  
<낙타상자> <마른대지> <썩사인의 전사들>  
<사막 속의 흰개미> <아리아 다 카포> 외

음악

**박민수**  
Park Min-soo

연극  
<인싸이드> <만약 내가 진짜라면> <브라질>  
<페스트> <누구세요> 외

영상 / 디자인

**정병목**  
Jung Byung-mok

연극  
<데모크라시> <자기 앞의 생>  
<썩사인의 전사들> <록엔들> <그 개> 외

영상 / 기술

**김성하**  
Kim Sung-ha

연극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크리스천스> <요정의 왕> <피와 씨앗>  
<철가방추적작전> 외

안무

**금배섭**  
Keum Bae-sub

무용  
<포옹> <간 때문이야> <섬>  
<니가 사람이냐> 외

연극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숨통> <안숙선의 이야기 창극 - 두사랑>  
<함악> 외  
수상  
2015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공동수상)  
2016 부산국제무용제 AK21 우수상

음향

**김병수**  
Kim Byong-su

연극  
<당신이 그림습니다> 외  
국악유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닭들의 꿈, 날다> 외

무대감독

**송태영**  
Song Tae-young

연극  
<지하생활자들> <하필감관전>  
<로미오와 줄리엣> <어마> 외  
연화극  
<까막눈의 왕> <콩데렐라>  
<매우 매우씨> <꽃피는 바리> 외

조연출

**김유림**  
Kim Yoo-rim

연극  
<모든 영광은> <아라비안 나이트>  
<피와 씨앗> <목란언니>  
<노란봉투> 외

출연

유병훈 안병식 김명기 이봉련  
권일 김정민 박희정

스태프

원작 호시 신이치  
星新一  
각색·연출 전인철  
무대 박상봉  
조명 최보윤  
의상 김우성  
분장·소품 장경숙  
음악 박민수  
영상 정병목 김성하  
안무 금배섭  
음향 김병수  
조연출 김유림

무대디자인 보 원윤환  
조명디자인 보 홍주희  
소품디자인 보 남혜연  
저작권 업무대행 고주영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송태영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홍주희  
음향오퍼레이터 김병수  
영상오퍼레이터 김학준

무대진행

의상진행 김민주  
분장진행 장경숙

무대제작

아트빈  
대표 박수빈  
의상제작 kostume  
대표 김우성  
소품제작 분가분가  
대표 장경숙

조명장비임차

페스티벌오브라이트  
대표 김연도  
음향장비임차 링크시스템  
대표 최민호

조명팀

홍주희 홍유진  
이명진 권태준  
김영준 이상민  
박혜민

음향팀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최운영 이승이  
김울

마케팅

오지수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이정민 김호진  
변정원 조영채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운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홍보·연습·공연사진

나승열  
메인디자인 스튜디오 이진우  
대표 이진우

응용디자인

나이스프레스  
대표 김은하  
홍보영상 602 STUDIO  
대표 김영준

기록영상

미니멀랩프로덕션  
대표 전호식  
하이라이트영상 오솔로 프로젝트  
대표 이영관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대표 최경미  
문화공장오감  
대표 박종민  
홍보물 인쇄 효성문화  
대표 김삼영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봄봄  
대표 김은총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대표 신동복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보연  
매표안내원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이선영

하우스 매니저

하우스 안내원 김성주 권묘정  
전준형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정이현  
김희지 정주호  
지윤아 최재훈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정채영  
홍류리

제작

(재)국립극단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 재단법인 국립극단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예술감독 이성열

### 사무국장 오현실

###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 학술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정은서 청년인턴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승이 김울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변정원 마케팅  
이현아 김보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해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복무·복지후생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박예원 정보화·교육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웅  
주인영 홍아론

## 기획초청공연

원작 S. Beckett

번역 오증자  
연출 임영웅

무대 박동우  
조명 김종호  
의상 최 원  
분장 김유선

출연  
더블캐스팅  
정동환 이호성  
박용수 안석환  
김명국 정나진  
박윤석  
이민준



국립극단  
산울림 50  
1969-2019

SHINSEGAE 푸른터켓  
韩国新世界免税店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임영웅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 50th  
1969-2019

2019.5.9-6.2 명동예술극장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www.ntck.or.kr](http://www.ntck.or.kr)

